

-기는커녕

부정·반전 — ~는커녕 ~도 못/안

더 큰 기대를 부정한 뒤, 그보다 작은 것까지 부정합니다. 뒤 절도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며, 이 이중 부정이 이 구문의 핵심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동사	-기는커녕	쉬다 → 쉬기는커녕
명사, 받침	은커녕	밥은커녕
명사, 모음	는커녕	커피는커녕
뒤 절	도 + 부정	물도 못 마셨어요
뒤 항목	앞 항목보다 작은 것	쉬기 → 밥 → 물
맞춤법	커녕, 붙여 씀	는 커녕(×)

■ 언제 쓰나요

동사 어간에는 -기는커녕을, 명사에는 은/는커녕을 붙입니다: 밥은커녕, 돈은커녕. 한 단어로 붙여 쓰며, 커녕은 단독으로 쓰이지 않습니다.

짜임은 고정되어 있습니다. 앞의 항목이 더 큰 것, 뒤의 항목이 더 작은 것이며, 둘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쉬기는커녕 밥도 못 먹었어요 — 쉬는 건 고사하고 밥도 못 먹었다는 뜻입니다.

그래서 뒤 절에는 거의 언제나 도와 부정 표현이 들어갑니다. 뒤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이 구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.

불평이나 반박하는 말투이며, 상대가 방금 한 짐작에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■ 예문

- 1 쉬기는커녕 밥도 못 먹었어요.
- 2 칭찬은커녕 오히려 혼났어요.
- 3 돈을 벌기는커녕 손해만 봤어요.
- 4 여행은커녕 주말에 나가지도 못했어요.
- 5 직접 만들기는커녕 사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.
- 6 도움은커녕 방해만 됐어요.

■ 비교

조차
조차는 극단의 경우 하나를 나타내고, -기는커녕은 두 단계를 세운 뒤 둘 다 무너뜨립니다. 두 표현은 한 문장에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

물조차 못 마셨어요. / 쉬기는커녕 물조차 못 마셨어요.

-지만
-지만은 대조를 중립적으로 말하고, -기는커녕은 앞의 생각을 딱 잘라 부정한 뒤 실제 상황을 제시합니다.

쉬고 싶었지만 못 쉬었어요. (쉬고 싶었지만 못 쉬었다) / 쉬기는커녕 밥도 못 먹었어요. (쉬기는커녕 밥도 못 먹었다)

-기는 하지만
하나를 인정하고 다른 하나는 거부합니다. -기는 하지만은 앞의 내용을 인정하고, -기는커녕은 단호히 부정합니다.

쉬기는 했지만 짧았어요. (쉬긴 했지만 잠깐이었다) / 쉬기는커녕 못 먹었어요. (쉬지도 못했다)

■ 주의

- × 쉬기는커녕 밥은 먹었어요.
- 쉬기는커녕 밥도 못 먹었어요.
두 항목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. 뒤의 일이 일어났다면 구문이 모순됩니다.
- × 밥은커녕 쉬지도 못했어요.
- 쉬기는커녕 밥도 못 먹었어요.
앞 항목이 더 큰 것, 뒤 항목이 더 작은 것입니다. 순서를 바꾸면 점층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.
- × 칭찬은 커녕 혼났어요.
- 칭찬은커녕 혼났어요.
커녕은 바로 붙여 쓰며 띄어 쓰지 않습니다.